열대야에 '올빼미 쇼핑족' 늘었네 폭염주의보속에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자 더위를 피해 밤 늦게 쇼핑을 나온 '올빼미 쇼핑족'들이 급증하고 있다. 2일 밤 광주시내 한 대형마트 계산대가 올빼미 쇼핑족들로 북적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나주혁신도시 건설 광주업체도 참여

'준정부기관·지방 공기업법' 시행 규칙 개정
"광주·전남 동일소재지" 건설업계 건의 수용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에 현행 법상 참여가 배제됐던 광주지역 중소업체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광주시는 2일 "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나주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당초 전남이 아닌 광주에 주소지를 둔 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했으나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과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 개정이 끝남에 따라 광주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 등에 따르면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가 이뤄지는 시·도에 있는 건설업체만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양 시·도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전 공공기관을 한 곳에 모아 나주지역에 건설함에도 불구하고 광주 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사업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촉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점을 부각시키며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했다.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재정경제부·행자부·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수차례 대책을 논의한 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등 관련 법령이 모두 개정돼 이달 안에 시행된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의 경우 지역 업체의 범위를 광주와 전남을 동일한 소재지로 간주하고,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조정하는 일부 조항을 삽입했다.

또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역과 관련된 입찰의 경우에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소재지로 본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켰다.

광주시는 8천억원대로 추정되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광주 업체의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나주시 금천면 일대 729만5천㎡(230만평)에 건설되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최근 건교부의 개발계획이 확정됐으며, 토지 보상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 착공해 2012년 완공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서비스업 중심 창업 활발

광주·전남 2분기 신설법인수 808개

광주·전남지역 기업 창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2분기 지역내 신설법인수는 전분기(781개)보다 27개 늘어난 808개로 2002년 2분기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유통 등 도소매업과 전자·통신·영상 등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신규 창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신규창업 건수가 447개로 전체 창업건수의 절반이 넘는 55.3%를 차지했다. 전분기에 비해서는 도소매업(28개), 사업서비스업(23개)을 중심으로 67개가 늘었다.

반면 건설업은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물량 감소와 지역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32개 줄어든 192개가 새로 설립됐다. 제조업도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지속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로 인해 전분기에 비해 17개 줄어든 137개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의 신설법인이 414개로 전분기에 비해 17개 늘었고 전남은 394개로 전분기대비 10개 증가했다.

자본금 규모별로 보면 2억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창업이 692개로 전체 신설법인의 85.7%를 차지했다. 특히 5천만원 미만의 생계형 창업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3.8%포인트 늘어난 반면 5천만~2억5천만원의 창업 비중은 2.6%포인트 줄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향후 소비회복을 기대하며 창업을 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그러나 영세 창업이 많아 동종 업체간 경쟁력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지폐 묶음 꼭 세어보세요"

韓銀 일련번호 결번 주의

한국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낱장 검사기로 검사한 은행권을 시중에 유통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은 검사기계에서 전지(지폐가 낱장으로 잘라지기 전의 상태)가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지폐 일련번호를 찍지 않고 육안으로 검사한 뒤 문제가 없는 지폐에만 일련번호가 찍힌다.

따라서 지폐 100장 묶음은 모두 결번없이 일련번호로 돼 있지만 육안 검사에서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낱장 검사기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전지에 먼저 일련번호를 인쇄한 뒤 이를 낱장으로 잘라 한장씩 일일이 검사하기 때문에 연속되지 않는 묶음이 생기게 된다. 부적격 판정으로 낱장 검사기를 거친 은행권 묶음에는 '이 묶음은 일련번호 순이 아님'이라는 붉은 문구가 표기된다.

한은 관계자는 "일련번호에 의존해 장수를 추정하지 말고 반드시 은행권을 한 장씩 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여신 2조 달성탑' 수상
농협 광주본부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신성수)는 2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건전여신 2조원 달성탑'을 수상했다.

농협광주본부는 2006년말 건전여신 1조8천758억원이었으나 7개월여만에 2천1백억원이 증가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취임한 신성수 본부장의 건전여신 증대를 위한 공격적인 경영, 영업점 여신 마케팅활동 지원 강화, 우량개인고객 신용대출 총력추진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하림닭고기서 항균제 기준치 초과 검출"

소시모 전량 리콜 촉구

소비자시민모임은 2일 시중에서 판매중인 ㈜하림의 닭고기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고 12배를 넘는 합성항균제가 검출됐다면서 전량 리콜할 것을 촉구했다.

소시모는 지난 6월18일부터 7월16일까지 서울 소재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일반정육점 20곳에서 판매하는 쇠고기(29점), 돼지고기(43점), 닭고기(28점)를 수거한 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잔류물질 검출 시험을 실시했다.

시험결과 하림의 '하림셀치킨'에서 기준치(0.10㎎/㎏)의 4배를 넘는 0.49㎎/㎏의 항균제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이 검출됐고, '숲정이 옛날시골닭'에서는 엔로플록사신이 1.27㎎/㎏이나 검출돼 기준치의 12배를 넘었다.

소시모는 엔로플록사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닭고기를 생산 유통시킨 하림은 생산자와 생산일지를 추적, 확인해 전량 리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시모는 또 이런 검출결과를 하림측에 조회한 결과 하림은 해당 닭고기가 어느 농가에서 어떻게 생산된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등 생산농가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트랜스지방 줄어도 포화지방은 증가

제빵류 183건 실태 조사

트랜스지방이 유해물질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가공식품에 든 트랜스지방 함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트랜스지방과 마찬가지로 인체에 유해한 포화지방은 일부 제품에서 도리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시민단체 환경정의에 따르면 파리바케트와 크라운베이커리 등 서울지역 주요 제과점 27곳의 제빵류 183건에 대한 식약청의 '2007년 상반기 트랜스지방 함량 실태조사' 결과, 트랜스지방은 감소하고 있지만, 포화지방의 경우 저감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일부 제품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

팜유에 많이 함유돼 있는 포화지방은 많이 섭취할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비만 등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어 트랜스지방 만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품목별 포화지방 함량은 도넛이 2005년 23.9%에서 2007년 52.5%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비롯해 크림·단밭빵이 2005년 50.3%에서 2007년 58.6%로, 꽈배기는 2005년 26.3%에서 2007년 30.8%로 각각 늘어났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또 크로켓은 2005년 20.6%에서 2007년에는 23.1%로, 패스추리는 2005년 48.8%에서 2007년 64.6%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우리카드 영업점 개소
광주 상무·순천영업소

우리은행의 우리카드 광주 상무영업소와 순천영업소가 2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상무영업소(소장 최현호)는 이날 광주시 서구 치평동 주택공사 사옥 9층에서 박영호 부행장(카드사업본부)과 조용기 호남본부장 등 우리은행 관계자와 카드 모집인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사진〉

또 순천영업소(소장 조준석)도 순천시 연향동 그린빌딩 3층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상무영업소와 순천영업소는 우리카드의 21번째 영업소로 각각 30여명의 모집인이 일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카드는 지난해 약 17조원의 매출을 기록, 카드부문 시장 점유율 6.5%로 업계 순위 6위에 올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휴대전화 기기변경 제한
이동통신업계 담합 횡포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2일 이동통신 3사의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서 가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약관에도 없는 규정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신규 가입은 허용하면서 돈벌이가 되지 않는 기기 변경은 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이동통신 업체의 담합이고 횡포"라며 "각 이동통신 업체에서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원인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지 3개월이 안된 가입자는 새 단말기를 선물로 받더라도 기기 변경을 할 수 없고, 대리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할 때만 기기 변경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